

한국 사회과학 협의회 소식

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발행인 임 현 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권두언 사회과학연구지원을 유인하는 제언	이진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차기회장 /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	02
아시아 사회과학협의회대회 (AASSREC) 참가기	서문기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총무위원장 송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04
인도네시아 반동회의 참가기	임현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06
월례 세미나 신뢰연구: 새로운 연구 경향	라인하드 바흐만 Reinhard Bachmann 런던대, SOAS, Department of Financial and Management Studies 교수	08
학회동정		12
협의회행사 / 프로그램		14
소식란		16
성명서: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한국사회과학계의 입장		17
학회 임원진 소개		18

이 진 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차기회장 /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지난 5월 20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임현진 회장님의 “사회문제 해결, 사회과학 지원이 답이다”라는 칼럼은 일반 대중에게 사회과학발전 및 지원의 필요성을 적시에 일깨워주었다. 이 칼럼의 내용에 공감하며 이 시점에서 단순히 일반 국민에게 계몽이나 인식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과연 우리 사회과학도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본다. 정부의 지원이나 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할 일이 꽤나 있을 성 싶다.

사회과학연구지원을 유인하는 제언

우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연구 토픽이나 연구대상이 너무 현학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학문발전을 위해서 대중의 현실과 다소 괴리된 소위 미래지향적 토픽들을 심층 분석 연구 하는 것이 학자의 바람직한 연구태도이다. 그러나 인문학이나 자연과학과는 달리 우리가 하는 사회과학 학문은 사회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의 본래의 의무는 우리 사회의 순기능적 역할 및 현상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연구하고 취급하는 주제가 너무 학문 그 자체를 위한, 연구를 위한 연구에 치우치고 있지 않나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의 지나친 학문적 지향 연구는 현재 동시대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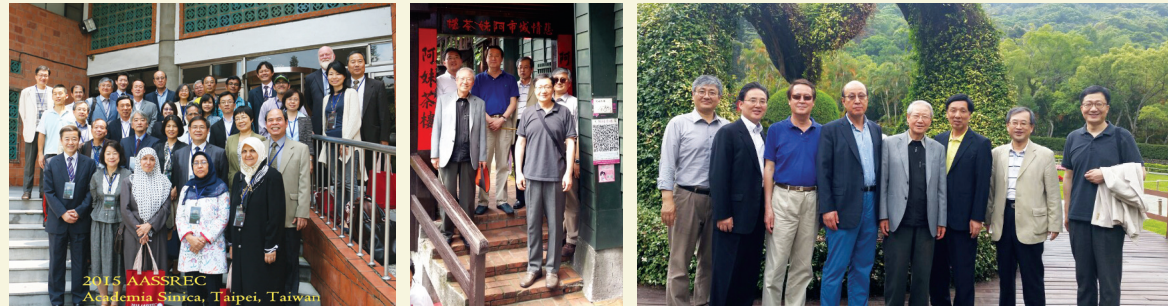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이 과연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라는 의문을 던져 본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구 공통적 사회 과제가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있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문제, 위험사회, 갈등과 테러 등 여러 가지 지구적 이슈가 바로 다시 우리 이웃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대 과제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상 사회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부족하다.

그냥 그대로 세계적 사회적 유행을 검증 없이 현실에 재구성 재생산하기에 바쁘지 않은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위험사회문제는 과연 우리가 현실에 맞닿는 학교 폭력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IS에 대한 무작정한 반감은 우리 사회의 다종교 공존 문제와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또 고래 멸종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그린피스 운동은 과연 우리나라의 NGO 운동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등, 지구적 과제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우리의 사회문제와 어떻게 친사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임현진 회장님을 모시고 일부 임원진들이 AASSREC (아시아 사회과학협의회) Conference를 대만 타이베이로 다녀왔다. 학회 연구주제는 아시아 도시계획 및 문제에 관한 것으로 아시아 여러 대표들이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도시 관련 문제에 대해 발표를 했다. 여러 분야에서 도시문제를 다루는 토론의 장이다 보니 너무 기술적인 주제도 있어 다소 알아듣기 어려운 주제도 있었으나 도시의 지하철 교통문제, 도시균형 발전 문제 등 우리가 얼마든지 학문적 주제를 대중의 관심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제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과학도는 여러 가지 학문적·지구적·거시적 주제를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위 체감 사회 이슈로 대중에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학문적 이슈를 정책적 이슈로 개발하여 일반사회에 가져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사회의 지원 및 관심을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서 문 기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총무위원장
송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2015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 사회과학협의회대회(AASSREC)에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다녀왔다. 평소 한국사회과학의 지형을 확장하고 국제연구협력의 지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임현진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여러모로 부족한 필자가 참여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아시아 사회과학협의회대회 (AASSREC) 참가기

필자의 첫 번째 방문이기도 한 대만의 첫인상은 공항, 거리,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의 시설 등이 매우 깨끗하며, 사람들도 무척 친절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 및 중국과 달리 일본에 대한 대만의 호의적인 반응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아시아의 다양한 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과학을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해서 더 값진 경험이었다.

본 학술대회는 아시아 각국의 사회과학협의회 등 총 17개국 회원으로 구성되는 국제행사이며, “Megacities of Asia: Social Sciences and Our Urban Futures”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최국 대만을 비롯하여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란,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국 37명의 참가자가 각국의 도시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중국 도시화와 메가시티의 환경” 및 “대만과 복건성의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중국 전통기업의 문화적 보존, 중국 도시화와 공동체, 한국도시 썬(scene)의 발전과정, 일본 도시의 미래, 대만도시의 수질관리, 메가 도시의 거버넌스 구조, 테헤란시의 가족구조, 글로벌 도시화, 아시아·태평양 도시의 미래, 필리핀 및 자카르타 도시화, 베트남 도시화의 과제 등 다양한 사례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한국에서는 임현진 회장님의 집행부 회의 참가, 정원호 선생님의 논문 발표, 황석만 선생님의 사회와 오철호 선생님의 토론 참가 등이 돋보였으며, 특히 학술대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신 송복, 임현진 선생님의 진지한 자세는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다.

오늘날 지구촌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집중으로 구조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에 대한 전망과 문화를 다져 나가야 할 때라고 하겠다. 참가국의 활발한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의 규모나 조직운영 면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크게 남는다. 향후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과 달리 아시아 각국의 사회과학 협의회는 자체 예산 및 조직을 구성하여 정책을 기획, 입안하는 공적 기구이다. 둘째, 아시아 사회과학협의회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국제 학술대회로서 행사 전반에 대해 질적 제고를 위한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빡빡한 대회 일정을 소화함과 동시에 틈틈이 임원진과 함께 하였던 대만 투어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어울린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중국 역사에 관한 송복, 임현진 선생님의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에는 아연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으며, 고궁박물관 및 중정기념당의 역사적 향기 속에서 흐르는 대담은 그 자체가 책으로 발간될 정도의 고담준론이었다. 중국의 문화 및 음식에 관해 일가견을 보여주신 이진규, 박찬욱, 정세영, 오철호 선생님의 열띤 모습과 따뜻한 마음도 감탄이 절로 나올 따름이다. 대회 참가를 포함하여 제반 일정에서 적극적인 헌신과 봉사정신을 발휘한 황석만, 장원호 선생님의 숨은 노력도 잊을 수가 없다. 이번 참가를 통해 사회과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지평선을 찾는 열정에서 드러난 높은 식견과 인품을 바탕으로 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피어나는 진한 사랑을 느끼면서 여태껏 짓누르고 있었던 머릿속의 깊은 고통은 멀리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임 현 진

한국사회과학협회 회장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인도네시아 반동회의 참가기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비(非)동맹. 오늘의 국제정치에 그런 것은 없다. 거의 모두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맹, 제휴, 조약, 협정 등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려 한다. 지역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 건설도 주저하지 않는다. 아세안(ASEAN)이 좋은 보기다. 아세안 10개국은 경제는 중국 그리고 안보는 미국을 활용해 집단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반동정신의 대의에도 불구하고 비동맹은 수사로 남아있을 뿐이다.

[본 참가기는 내일신문 2015년 6월 11일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반동을 다녀왔다. 올해 반동회의 60주년 행사에 일본 수상 아베가 다녀갔다고 한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이란 의례적 표현을 쓰면서 정작 아시아지역의 식민지배에 따른 피해와 고통에 대한 사죄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굳이 반식민주의와 반제국주의라는 반동정신은 고사 하고라도, 10년 전 같은 자리에서 무라야마담화를 따라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고이즈미 전총리의 표명에 비하면 일본의 역사인식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반동은 어떤 곳인가.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차례로 받은 고난의 땅이다. 이곳에서 1955년 4월 중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열렸다. 인도의 네루 총리,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 중국의 주은래 총리,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중심에 있었다. 반동회의는 비동맹(non-alignment) 노선 아래 당시 미국과 소련의 제국주의적 패권에 도전하는 정치연합의 성격을 갖는 운동이었다.

연대와 공존의 반동정신

비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독립을 얻은 신생국들이 국가건설의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어느 진영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국가이익 나이가 집단이익에 입각한 정체성 모색을 시도한 운동이었다. 결국 미소냉전 아래의 신(新)식민주의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에 다름 아니었다.

흥미로웠던 사실은 반동회의에 대해 구(舊) 소련은 미국 견제라는 시각에서 열렬히 환영했고 미국은 동맹국 확보에 지장이 된다는 점에서 격렬하게 비난하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나라들은 미국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으나, 그들이야말로 제국주의의 희생자였다는 점에서 다소 모순적이다.

반동회의의 ‘평화 10개 원칙’은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지배에 대응하는 이념적 자기정립을 표상하고 있다. 특히

반동회의에서 주창된 ‘반식민주의, 민족자결주의, 세계 평화주의’는 1961년 9월 베오그라드의 비동맹회의에서 다시금 비동맹권의 도덕적·정치적 지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 산하 통상개발위원회(UNCTAD)가 설치된 이후 1967년 77그룹회의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에 추가해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비동맹 운동은 동서 냉전 체제 대립 아래에서 정치적 중간지대의 성격보다 남북 관계에서 민족의 경제적 입장을 표방하게 된다.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 평화공존에 부가해 대등한 주권, 공평한 분배, 민주적 참여가 강조되었다.

문제는 개도국들이 성장하면서 경제수준이나 정치체제에서 서로 다르다 보니 새로운 연대와 결속을 위한 집합적 이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개도국들 중 구제불능의 최빈국으로부터 신흥 발전국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BRICS로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와 같은 중견국과 신흥대국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외교의 시야를 넓혀라

비동맹이 쇠퇴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세계화 와중에서 신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이 자라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동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올해 반동회의 60주년 행사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달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자칭 중견국 이라고 하면서도 강대국 국제정치에 빠져 있는 한국 외교의 협애한 안목과 시야를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반동회의는 120개 회원국에 17개 옵서버국이 있다. ASEAN+3보다 중요한 것이 반동회의다. 과거 한국은 비동맹회의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이제 참여가 약속되어 있다. 위만 쳐다보면 아래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외교다.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라인하드 바흐만 Reinhard Bachmann
런던대, SOAS, Department of Financial and
Management Studies 교수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2015년 4월 16일(목)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회의실(303호)에서
2015년 제1회 사회과학협의회 월례 세미나 “세계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이 개최되었다. 발표자 라인하드 바흐만(Reinhard Bachmann)
교수는 런던대, SOAS, Department of Financial and Management
Studies에 재직 중이다.

바흐만 교수는 “신뢰연구: 새로운 연구 경향(Trust: New Research
Trends)”이라는 제목으로 신뢰 연구의 현황과 미래 연구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신뢰연구: 새로운 연구 경향

신뢰연구는 사회과학과 경영학 등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새로운 분야이다. 신뢰연구는 연구의 한
분야로 정립되었으나 그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은 편이다.
1970년대에 발표된 신뢰연구 관련 논문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신뢰연구는 적절한 연구 주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구의 금융 위기 등에서 신뢰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오늘날에는 많이 변화했다.

본인은 캠브리지에서 박사후 과정에서 독일, 영국, 이태리
각국의 기업물품 공급업체와 수요자 관계에 대해 비교
연구한 적이 있다. 이 연구의 인터뷰 대상이었던 세일즈
매니저들의 계약에 대해 조사하고 그들이 수요자와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들은 양자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것이 내가 신뢰
연구를 하게 된 출발점이었다.

신뢰란 무엇인가?

마인드(mind) 실험에서는 불확실한 상황(루만Luhmann의
시스템 이론으로 말한다면 복합성)이 설정된다. 무한정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너무 복잡해서 결정하기 힘들다.

마인드 실험에서는

- 1)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 2)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이와 다르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상황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과 아는 것
에 기초하여 마인드 실험의 가정들을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 특정한 가정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제외할 수
있다. 그러므로 1) 불확실성은 제거되고, 2) 특정한 가정
들이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가정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그러한 메커니즘 중의 하나가 신뢰다.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몇몇 가정들을 무시한다. 만약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의 행동에 대해서도 특정한
가정을 하게 된다. 신뢰는 선행되는 것이며 전제 조건이다.
또한 신뢰는 매우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신뢰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지만 반대로 위험을 생산한다.
위험은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신뢰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배신당하거나 실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한다. 신뢰하는 경우에는 ①배신당할
수도 있으며 ②가정이 옳다는 것이 입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위자가 가시적인 신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가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루만은 비즈니스적 맥락에서는 법적 규범이 위험을 용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 경우 법적 규범은 잠재적이다. 이는 가정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신뢰를 위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법적 규범은 법원에 가기 전에 갈등을 처리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법적 규범은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안전망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신뢰 구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업법, 법적 규범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을 제거한다. 즉 위험을 제거하고 신뢰를 강화시킨다. 이는 공유된 지식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비즈니스에서 상업법 및 법적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회사가 다양한 국가의 다른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기든스에 의하면 신뢰는 근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다. 근대 사회의 복잡성 때문이다. 근대 사회에서는 온전히 대면 접촉의 상황에 의존할 수 없다. 대면접촉 외에도 법,

제도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위험을 감소시키고 신뢰를 강화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근대 사회는 점점 더 전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대면접촉 혹은 공동체를 통해 신뢰의 확보가 가능했다. 그러나 대규모의 차별적인 근대 사회는 다른 형태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물론 대면 접촉에 의한 신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법, 규범 등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고 신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대 사회에서는 다른 형태의 신뢰, 즉 제도에 기반한 신뢰와 대인관계에 기반한 신뢰가 존재한다.

이와 다른 관점에서 콜맨은 신뢰는 계산이며 합리적 선택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L/G \rightarrow \leftarrow = p/1-p$$

잠재적 손실을 잠재적 이득으로 나누면 더 (손실이) 큰 경우, 더 작은 경우, 동일한 경우가 있다. P는 가능성, 신뢰가 정당화될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 등식을 통해 신뢰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숲을 산책하자는 소년의 제안에 소녀가 동의하는 경우 잠재적

손실, 이득, 가능성은 모두 주관적이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등식은 적용하기 힘들다. 경마의 경우에는 손실과 이득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등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신뢰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즉 이것은 신뢰를 낳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신뢰의 문제와는 큰 관계가 없다. 신뢰의 문제는 명확한 등식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근대 사회에서 신뢰는 얼마나 중요한가?

주커(Zucker)에 의하면 19세기 미국에서 사람들은 직접 물건을 거래했고, 대면접촉과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구축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는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대면접촉과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만으로는 심각한 한계가 나타났다. 20세기 후반에는 법적 규범, 사회적 규범, 제도 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대인관계에 기초한 신뢰 외에도 비즈니스 관계에서 신뢰를 용인하는 더 큰 프레임워크(framework), 제도, 법적 규범을 갖고 있다. 대면접촉은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다지 경제적이지는 않다. 제도에 기반한 신뢰의 경우에도 여전히 사람들(두 행위자) 간의 신뢰이지만, 제도의 배경과 제도에 기반한 규칙 안에서 행위하게 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어떤 선택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

권력 또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력이 강한 회사와 소규모 공급자의 경우 후자는 큰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된다. 신뢰에 기반 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믿는다면 그는 모든 지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권력과 신뢰의 역할은 매우 유사하다. 조정 과정에서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권력이 신뢰를 대치하거나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영국 등은 제도적 규제가 낮고 관습법을 따르는 국가다. 관습법을 따르는 경우 법률 시스템은 개별적인 사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들다. 산업협회의 역할을 보면 다수의 협회들이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기 때문에 보편적 행동의 규칙을 내놓기는 힘들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은 높은 수준의 제도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시민법을 따르는 국가다. 시민법은 비즈니스 거래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져온다. 산업협회의 역할을 보면 하나의 거대 조직이 산업을 대표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준수해야 할 규칙의 견본을 만들어 내놓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신뢰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영국과 같이 강력한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대인관계에 기반하여 신뢰가 구축되는 경향이 있다. 신뢰와 권력의 상관관계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이는 신뢰가 어디에서 구축되는가에 달려 있다. 제도에 기반한 신뢰의 경우에는 권력과 신뢰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반면 대인관계에 기반한 신뢰의 경우에는 권력과 신뢰 간에 관련성이 낮다.

신뢰 연구의 향후 전망

①거시적 수준에서의 신뢰 연구

대인관계 수준에서 신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거시적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도에 기반한 신뢰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②장기적 연구

조직이나 관계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신뢰의 변동과 형태에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신뢰를 철회해야만 하는가를 관찰해야 한다.

③맥락(Context)을 반영하는 연구

다양한 국가에서 설문조사는 상이한 의미를 갖게 된다. 공통성도 있지만 국가들마다 상이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이한 국가에서 신뢰와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찰하는 방법론을 연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연구를 유의미하게 하는 일정한 공통성도 여전히 확보해야만 한다.

학회동정

1. 경제사학회

» 2015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15년 5월 2일(토)
장소 : 고려대학교

» 2015 하계 학술대회
일시 : 2015년 6월 27일(토)
장소 : 고려대학교 정경관 201호

2. 국제개발협력학회

» 2015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15년 5월 29일(금)
장소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 2015 동계학술대회
일시 : 2015년 12월 4일(금)
장소 : 미정

3. 대한지리학회

» 2015 지리학대회
일시 : 2015년 6월 26~27일(금, 토)
장소 : 경희대

» 대한지리학회 70주년 학술행사(행사명 미정)
일시 : 2015년 11월 20일(금)
장소 : 미정

4. 한국경영학회

» 춘계심포지엄 및 최우수경영대상 시상식
일시 : 2015년 5월 22일(금)

» 추계심포지엄
일시 : 2015년 11월 20일(금)
장소 : 미정

5. 한국경제학회

» 정책심포지엄
주제 : 한국경제의 과제와 해법
일시 : 2015년 5월 15일(금)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6. 한국교육학회

» 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주제 :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
일시 : 2015년 6월 26~27일(금, 토)
장소 : 부산대학교

7. 한국국제정치학회

» 하계학술대회
주제 : 광복과 분단 70년: 한국국제정치의 이론과 실천
일시 : 2015년 6월 26~27일(금, 토)
장소 : 여수엑스포

» 연례학술회의
일시 : 2015년 12월 4~5일(금, 토)
장소 : 국립외교원

8. 한국문화인류학회

» 봄 학술회의
주제 : 오감의 인류학: 사물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
일시 : 2015년 5월 22일(금)
장소 : 민속박물관

9. 한국사회복지학회

» 2015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 : 한국의 사회복지 공급 패러다임:
국가주의와 전문가주의에 대한 성찰과 대안
일시 : 2015년 4월 24~25일(금, 토)
장소 : 한림대학교

10. 한국사회학회

» 2015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일시 : 2015년 6월 19~20일(금, 토)
장소 : 경상대학교

» 2015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일시 : 2015년 12월 18~19일(금, 토)
장소 : 서강대학교

11. 한국심리학회

» 2015 한국심리학회 특별심포지엄
주제 : 탈(脫)폭력in심리학
일시 : 2015년 2월 13일(금)

» 2015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주제 : 한국인의 위험지각:안전불감증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일시 : 2015년 8월 20~22일(목~토)
장소 : 그랜드 힐튼 서울 컨벤션센터

12. 한국언론학회

» 한국언론학회 통일커뮤니케이션위원회 특별기획세미나
주제 : 한반도 통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모델
일시 : 2015년 5월 4일(월)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3. 한국여성학회

» 춘계 학술대회
주제 : 여성주의, 생존을 넘어 미래를 마주하다
일시 : 2015년 6월 20일(토)
장소 : 한양여자대학교

» 추계 학술대회
주제 : 혐오의 시대, 공감의 윤리(가안)
일시 : 2015년 11월 21일(토)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14. 한국정치학회

»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국제학술회의
주제 : 한반도 분단 70년의 원인과 과제
일시 : 2015년 6월 17~18일(수, 목)
장소 : 플라자 호텔

» 2015 한국학 세계대회
주제 : Bridging the Gap: The Promise of Politics in a
Polarized and Fragmented World
(간국의 해소와 정치학의 역할)
일시 : 2015년 8월 25~27일(화~목)
장소 : 경주 현대호텔

15. 한국행정학회

» 하계 국제학술대회
주제 : 좋은 행정 (Good Public Administration)이란 무엇인가?
일시 : 2015년 7월 16~18일(목~토)
장소 :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협의회 행사

I. 협의회 회의

1. 2015년 제 1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5년 1월 20일(화) 18:30
장소 : JS가든 압구정

2. 2015년 제 1차 운영협의위원회

일시 : 2015년 3월 4일(수) 08:00~09:00
장소 : 플라자호텔 무라사키

II. 2015년 제 1회 월례세미나

일시 : 2015년 4월 16일(목) 14:00~16:00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국제회의실(303호)
발표 : Reinhard Bachmann(Chair in International Management, Department of Financial and Management Studies, SOAS, University of London),
"Trust: New Research Trends"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협의회 행사

III. 학술대회

주제 :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7대과제: 21세기 일류국가를 위한 정책 제언
일시 : 2015년 4월 17일(금) 13:30~18:00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후원 : 국민은행

프로그램

개회식	(13:30~14:00)
전체 사회	황석만(한국사회과학협의회 총무위원장, 창원대)
개회사	임현진(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기조발표	이중원(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사) 한국경제, 희망은 없는가?: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1패널	(14:00~16:00)
사회	김정식(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연세대)
발표	최대석(이화여대) : 위기 속에서 움트는 도약의 씨앗: 1950년대로부터의 교훈 손열(연세대) :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1965년과 2015년: 동아시아 공생의 조건 김형기(경북대): 박정희 모델: 발전국가의 기적, 위기, 전환 임혁백(고려대): 1980년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기회와 제약 토론
제2패널	(16:15~18:00)
사회	이진규(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차기회장/ 고려대 경영대 교수)
발표	신광영(중앙대): 준비되지 않은 세계화, 세계화의 그늘 윤성이(경희대): 뉴미디어의 확산과 한국정치의 변화 이재열(서울대): 이종으로 위험한 불안사회, 한국 토론
	김호기(연세대), 조성대(한신대), 안재홍(아주대)

IV. 2015년 6월 KSSJ 42-1호 발간

V. 2015년 7월 단행본 「갑오년 동아시아(가제)」 발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하반기 행사(예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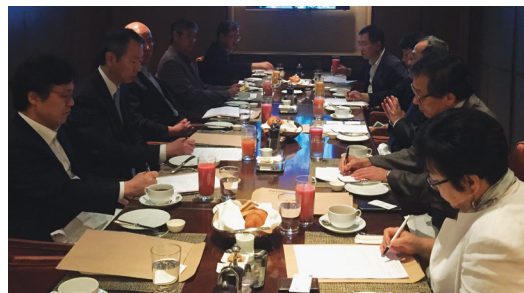
1. 국제학술대회 “아시아 자본주의 연구”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23일(금)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2. 사회과학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상세사항 추후 공고)
일시 : 2015년 10월 2일(금)
장소 : 국회의원회관(미정)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소식란

1.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세계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4회의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여 세계 사회과학계의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사회과학의 공공적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2015년 제 1회 월례 세미나는 4월 16일(금)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University of London에 재직 중인 Reinhard Bachmann교수가 “Trust: New Research Trend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 제 2회 월례 세미나는 7월 7일(화) 서울대 16동 349호(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며, UC Berkeley에 재직 중인 Ruth Collier교수가 “The High Tech Economy, Work, and Democracy 2.0: A Research Agenda”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본 협의회 임현진회장님과 장원호사무총장님이 함께 쓰신 논문 “한류 문화소비의 다차원성: 일본, 중국, 대만의 비교를 중심으로”(임현진, 강명구, 『동아시아 대중문화 소비의 새로운 흐름』, 나남, 2013)가 중국사회과학원 신식정보연구원 박광해 교수님의 번역으로 『국외사회과학』, 2015년 제2기에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해외 학계에 한국사회과학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본 논문의 번역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 4월 27~29일 대만에서 개최된 AASSREC회의에 임현진 회장님 이하 한국사회과학 협의회 임원진분들이 참가하였습니다.
4. 본 협의회는 6월 17일(수)에 협의회 임원 및 회원학회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연구재단 서태열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정부의 사회과학연구 예산 지원 현황(SSK사업 예산 축소 등)을 비롯한 현재 한국사회과학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향후 협의회 임원진 및 회원학회장이 연명한 성명서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한국사회과학계의 입장」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성명서: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한국사회과학계의 입장

한국 사회과학계는 최근 사회과학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흐름에 대한 우려에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한국 사회는 여러 곳에서 위험·균열·갈등·위기·충돌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난마처럼 얽힌 사회 문제에 대한 설명, 해법, 대안 모색은 사회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주요 과제이다. 과거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사회과학의 학문적·정책적 공헌은 매우 컸다고 자부한다. 사회과학은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 자유와 평등, 축적과 복지, 안전과 행복 등의 다양한 발전 가치를 공공성의 차원에서 조합함으로써 오늘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과학의 상상력과 창발성에 기반한 고양된 사회과학적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의 사회과학진흥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최근의 변화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부족한 나라살림에도 사회과학 진흥을 위한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 사업(SSK)을 통해 한국 사회에 걸맞은 자생적 지식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해 왔는데, 최초 150억원에서 출발하여 2011년 210억원, 2012년 260억원, 2013년 285억원, 2014년 297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증가 추세를 거슬러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 최소한 두 배로 늘려 세계 수준의 연구 집단 구축과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기대해왔던 우리는 예산 삭감을 정부의 사회과학에 대한 부정적 정책 변화로 평가한다. 이 변화는 사회과학의 현실 진단과 미래 사회발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낼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한국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과학의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과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사회과학 자체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인문학, 과학기술과의 융합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한국 사회 발전, 삶의 질은 질적 양적으로 한 단계 더 고양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사회과학에 대한 투자가 결코 사회과학만을 위한 투자가 아닌, 한국 인문학, 과학기술, 한국 사회발전을 위한 투자의 초석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제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2015년 6월 30일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학회 임원진 소개

회장단			
회장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전) 국제개발협력회장(2008년) (전) 한국사회학회회장(2006년) (전) 한국NGO학회회장
부회장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연임 (전) 한국정치학회회장(2011년)
부회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겸임 (전) 한국경제학회회장
부회장	이진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차기회장 / 고려대 경영학	겸임(대외협력위원장) (전) 한국인사조직학회회장(14대)
부회장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	(전) 한국언론학회회장(32대)
부회장	김복규	계명대 행정학	(전) 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2012년)
감사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학	
감사	신상협	경희대 국제통상협력학	

이사회			
이사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명예교수)	
이사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명예교수)	
이사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명예교수)	
이사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명예교수)	
이사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명예교수)	
이사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명예교수)	
이사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명예교수)	
이사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명예교수)	
이사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명예교수)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학회 임원진 소개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장원호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총무	황석만	창원대 사회학	위원장
총무	서문기	송실대 정보사회학	위원장(공동)
총무	임석준	동아대 정치외교학	
총무	이주현	서울시립대 행정학	
총무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총무	김영춘	울산과학기술대 경영학	
연구	손 열	연세대 국제학	위원장
연구	이용욱	고려대 정치외교학	
연구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	
연구	이정환	국민대 국제학	
연구	정재용	KAIST 경영학	
연구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	
편집	오철호	송실대 행정학	위원장
	위원 각 학회 편집위원장		
대외협력	이진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차기회장/ 고려대 경영대 교수	위원장
대외협력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	
대외협력	변종국	영남대 경영학	
대외협력	손승영	동덕여대 여성학	
대외협력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	
대외협력	최영중	가톨릭대 국제학	
대외협력	김익기	동국대 교양교육원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학회 임원진 소개

운영협의위원회		
경제사학회	조석곤	상지대 경제학
국제개발협력학회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대한지리학회	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
한국경영학회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
한국경제학회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
한국교육학회	진동섭	서울대 교육학
한국국제정치학회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한국문화인류학회	유철인	제주대 철학
한국사회복지학회	윤현숙	한림대 사회복지학
한국사회학회	김무경	서강대 사회학
한국심리학회	이규미	아주대 교육대학원
한국언론학회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
한국여성학회	공미혜	신라대 가족노인복지학
한국정치학회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
한국행정학회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가장 빛나는 컬러를 당신에게

BLUE TOPAZ | GREEN EMERALD 출시

눈부시게. 모든 것을 새롭게.

SAMSUNG Galaxy S6 | S6 edge

SAMSUNG
Galaxy S6 | S6 edge

NEXT IS NOW

당신을 빛내는 디자인 · 새로운 자유 무선충전 · 필요한 순간 빠르게 켜 충전 · 새롭게 열리는 줌 카메라

SAMSUNG



KSSREC

(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110-0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사직동)

T. 02 735 2159 F. 02 737 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5 Inwangsan-ro 1 Gil(Sajik-dong), Jongro-ku, Seoul 110-054, Korea

Tel: 82-2-735-2159

Fax: 82-2-737-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